

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위한 소통 간담회

지난해 11월부터 딸기·토마토 재배 농가서 일손 돕는 중 “제도 안정 정착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보성군은 최근 어디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해각서(MOU) 체결 지자체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을 초대해 보성군, 농업인, 근로자의 맞춤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근로자들은 보성군과 필리핀

파다다시가 지난 2023년 7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을 체결해 처음으로 입국한 근로자들로 2023년 11월부터 딸기, 토마토 재배 농가 등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보성군과 농업인은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입국 후 마약 검사, 외국인등록, 고용주-근로자 지도점검 등에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연락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숙소 제공, 임금 지급 등 기간 안정적인 거주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으며, 농업인 고용주들도 근로자들의 성실한 모습에 높은 고용 만족도를 보였다. 필리핀 파다다시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은 “처음 해보는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친절히 잘 알려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근무해서 다시 한번 오고 싶다.”라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낮은 한국 생활이 걱정됐으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보성군 김규용 부군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청 MZ위원 “내가 먼저 인사해요”

조직문화 개선 ‘앞장’

여수시청 MZ위원회 18명이 정기명 시장과 함께 지난 1일 오전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2월 정례회에서 “내가 먼저 인사해요” 구호를 외치며 직원들을 반갑게 맞았다. 이번 활동은 여수시 MZ위원회가 세대·직급 간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정한 인사태에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공직자 새내기들은 선배, 동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직원 상호간 인사를 유도했으며,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에 직원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여수시 MZ위원회는 이번 활동 외에도 ‘출근길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청내 방송을 통한 직장 내 인사문화 공유’를 비롯해 MZ세대 주도의 상향식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 과제를 설정해 매월 온·오프라인 정기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직장동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조직문화는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인권이 보장되는 직장문화 형성,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친절한 공직자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인 나부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전역, 교통신호 연동체계 구축한다

광양시는 주행 시 교차로 신호 정지 횟수를 최소화해 도로 주행속도 개선 등 쾌적한 도로 주행을 위해 광양시 전역에 ‘교통신호 연동체계’를 구축했다. 교통신호 연동화는 신호 주기, 신호기간 거리, 교통량 등을 조합해 신호기와 신호기간 차량의 원활한 주행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광양시는 시 전역 281개 교차로의 신호체계, 광양=기동취재본부

교통량 등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구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기타도로로 분류하고 18개 상습 정체 구간 교차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교통신호 연동은 ‘법정 차량 속도’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법정 속도 준수가 어려운 구간은 광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차량검지시스템(VDS)에서 측정된 속도를 기준으로 반영한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지역병원을 하나로 묶어 대학병원처럼”

전국 최초로 공공보건의료 재단 설립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순천시가 대학 병원의 시스템 역할을 하고 관내 의료 기관이 대학병원 내 각 진료과를 담당하는 ‘순천형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보건의료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공공보건의료 재단 기금은 우선 순천시 출연금과 기업체 등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심뇌혈관 치료 등 전문 특화 병원 운영을 위한 장비 확충뿐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 중 꼭 필요한 진료과이지만 재정이 어려운 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재단은 현재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의 단계에 있으며,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설립은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기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공공보건의료 재단이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의 행정력과 정치력 등이 협력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야간과 주말 소아환자 진료료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시민들뿐 아니라 광양, 여수 등 타 지역에서도 호응이 좋다. 이 두 병원에서는 고위험 산모 관리도 하고 있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의 경우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진료가 되지 않아 광주 등 원거리 병원으로 가야 할 뿐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등도

심각하다. 시는 중증 소아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순천형 소아응급실’도 내년 3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는 지역 내에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에 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에 대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뇌혈관 질환은 치료와 함께 재활이 중요하며, 전문적으로 재활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시는 정부, 전라남도, 지역내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재활 전문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의대 설립시까지 정부가 승인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 병원을 하나로 묶어 대학병원처럼 운영하는 순천형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군, 2024년 애향 네트워크 만남의 장 행사

고흥군은 지난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과 ‘애향 네트워크 만남의 장’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애향 네트워크는 중앙부처에 재직하고 있는 고흥 출신 공무원과 군청 공무원 간의 1:1 결연을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져주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시책이다. 이날 행사는 중앙부처 공직자와 고흥군청 공직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 주요업무 성과를 나누고 정부 시책사업

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 공명민 고흥군수는 이날 인사말에서 “고향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늘 성원해 주시는 중앙부처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주요 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와 각종 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가져와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만남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답사를 통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엔 항상 고흥 고흥이 있다. 앞으로도 고흥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하며 응원할 것”이라며 고흥에 대한 끈끈한 정을 내비쳤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